

기술력 증진, 생산력 확대, 일자리 복지를 위한
학업 ·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

2011. 1. 19

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
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
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
대한상공회의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

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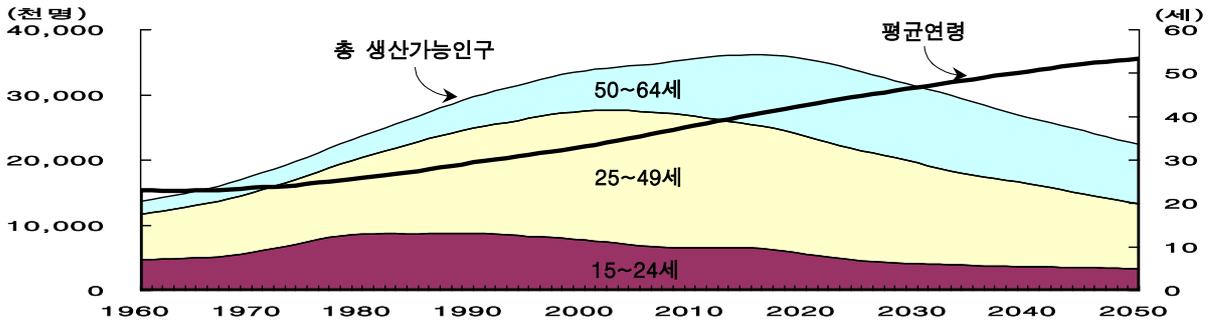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3
III. 추진방향	5
IV. 주요 추진과제	7
1.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	7
2.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	9
3. 산업계의 교육 참여 확대	11
V. 기대효과	15
VI. 추진일정	16

I. 추진 배경

①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취업연령의 상승

- 생산가능 인구가 '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공급 총량 부족 전망

* 노동력의 주축인 30~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 시작



* 자료 :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('09.1, 통계청)

- 사회전반의 고학력화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활동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될 우려

	최종학교 졸업연령 ¹⁾		노동시장 진입연령 ²⁾	
	1999	2006	1999	2006
한국	21.0	21.9	24.3	25.0
OECD평균	20.1	20.5	22.9	23.0 (獨 19.0)

1) 동일 연령집단 가운데 50% 이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최초의 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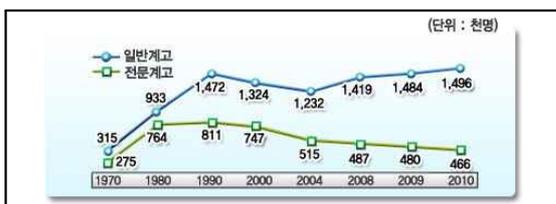
2) 동일 연령집단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하는 비중이 50%를 상회하는 최초의 연령(OECD)

② 현장 산업인력의 공급기반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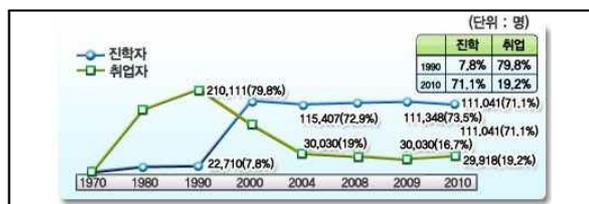
- (量 부족)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·기능인력 수급난 심화

- 반면, 4년제 대학 졸업 청년 실업률은 증가 추세

<전문계고 학생추이>



<전문계고 진학 및 취업률 추이>



- (質 저하) 체계적인 현장실습 등 산업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실하여 직업교육의 質 저하
 - 현장과 연계되지 않은 대학교육의 결과, 기업의 재교육 비용 증가 및 4년제 졸업생의 전문대, 폴리텍대 재입학 등 사회적 비용 증가
 - *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과정 정원(6천명 내외) 중 전문대학졸 이상 입학자 비율 증가 추이 : ('06)37% → ('10)48%

③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필요

- 사회전반의 학구열을 수용하면서도 현장 인력 부족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의 구축 시급
- 현장근무(실습)와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의 직업교육체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·설계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
 - * 독일의 경쟁력 유지 원천 :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통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(마이스터) 및 강소기업 육성
- 고교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 중심 직업교육 체계를 설계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
-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며, 취업·학업병행을 통해 사전적 일자리 복지 체제 구축이 가능(궁극적인 재정 수요 감소 기대)

- ◆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
- ◆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낮추고 우수 현장인력 조기 확보
- ◆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의 채용 확대 등 산업계의 역할 확대



기술력 증진, 생산력 확대, 일자리 복지 체제 구축

II. 현황 및 문제점

- 취업과 학업의 병행(선취업·후진학) 체제를 중심으로 -

「평생직업교육-평생취업체계구축방안」(‘09.3)과 「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」(‘10.5) 발표 등 “선취업·후진학”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이 이루어졌으나, 산업계의 수요 반영 및 참여가 부진하고, 실질적인 선취업·후진학 채널은 활성화되지 못함

① 수요자의 참여가 부족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

- 「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(‘10.5)」 등에서 산업계의 인력 수요 및 직업교육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미흡
 -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가 기업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·운영되지 않아 현장실습 기업 확보 및 졸업 후 취업 애로
- 현장실습 기회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로 공급자 중심의 직업교육에 그칠 가능성
 - 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체계적 현장실습으로 실습 성과 저하
-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및 협력 부진
 - 산업계의 인력양성 투자가 대학에 편중되어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에 대한 현장실습, 실험·실습 기자재 지원 등 미흡

② 취업과 학업의 병행을 위한 대학교육 기반 미비

- 사내대학, 계약학과, 재직자 특별전형 등 취업 중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경로 마련
 - 그러나,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에 입학하여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기는 어려움
- 사내대학(기술대학)은 현재 삼성전자공과대 등 4개 학교만 운영 중에 있으며 재직자 재교육 중심으로 과정 개설
 - * 정석대학('96, 대한항공 운영 기술대학), 삼성전자공과대('05.3), 삼성중공업공과대('07.3)
 - * SPC식품과학대학은 '11.3월 개교 예정(파리크라상,사니,삼립식품 등 식품전문업체)
- 계약학과 전체 271개 과정 중 채용조건형은 7%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재직자 중심 대학원과정('10)
- 전문계고 졸업생의 연속성 있는 진학 경로로서의 기능 활성화 필요

③ 선취업·후진학을 저해하는 사회적·정책적 요인 상존

-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현장 기술 중심의 인사관리보다는 인적특성(입사시 학력, 연공)을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 체계
- 취업 후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경력 단절 및 기업채용 기피
-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선취업·후진학 지원 체제 미비
 -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의 취업시 생활급여 지원 중단 등 사회보장 제도와의 충돌

Ⅲ. 추진방향

목 표

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

추진과제	세부대책
<p>1.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 ②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취업인턴제 시행 ③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‘과정형 공인민간자격’ 도입
<p>2.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② 선취업·후진학을 위한 여건 개선 ③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
<p>3. 산업계의 교육 참여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업의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② 산업계 중심의 전문분야별 대학 설립 추진 ③ 산업계 주도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 구축

< 참고 >

직업교육의 틀 및 설계(안)

- ◇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현장 교육(실습)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현장성을 강화
- ◇ 취업과 대학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진학경로를 제공하여 고교에서 대학으로 연결되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

마이스터고 + 특성화고 (현장 중심 기술교육 강화)



산업체 근무(취업과 학업의 병행)

산업체 근무(3년)



사내대학
(동업자대학)

일반대학
계약학과

일반대학
(재직자특별전형)

IV. 주요 추진과제

1.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

①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

- 산업체와 취업(현장교육)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, 현장교육과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 추진
- 교과과정은 독일 직업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을 참고하되, 우리나라의 실정과 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설계

< 독일 직업학교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>

- 학생과 기업간 현장실습교육(1주중 3~4일은 현장실습, 1~2일 학교교육) 계약을 체결하고, 기업은 실습보조금(獨, 월 500~600유로 수준) 지급
- 현장실습의 내용 및 운영관리는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가 주관

- 既 발표된 마이스터고 육성방안(10.5)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, '11~'12년간 2~3개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취업계약 입학제도 시범운영 추진

* ('11.2학기)시범학교 1학년 재학생 → ('12년)시범학교 신입생 → ('13년)타 학교로 확대 검토

②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취업인턴제 시행

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재학생의 현장경험 강화, 취업 확대 및 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인턴제 시행

< 취업인턴제 시행방안 >

- 참여대상 : 개인-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재학생(1~3학년)
기업-고용보험가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
- 기업이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수당 지급

- '11~'12년간 시범운영(2~3개 학교) 후, 확산 추진

【 실행방안 】

-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 -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의 현장교육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인력개발비로 보아 일반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대상(중소기업 25%, 대기업 3~6%)에 포함
 - * '11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(기재부)
 - 실습비용 일부 지원 및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('11.6)
 -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추천 확대('11)
- 대한상의에 민관 합동(대한상의, 교과부·지경부·고용부·중기청) “직업교육 강화추진단”을 설치,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및 확산 추진
 - 시범사업 대상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선정, 현장실습 참여기업 물색 및 지원방안 구체화,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의 내용 설계 등
-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현장실습 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 商議(또는 고용센터)에 “직업교육지원센터”를 설치·운영

③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“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” 도입

- 산업계 주도로 평가·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공인 민간자격 부여 추진('11)

< 공인 민간자격제도 시행방안 >

-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(SC : Sector Council)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교육과정과 자격을 개발하고, 학교는 이를 교육
-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대해 산업계의 전주기적 컨설팅 및 점검체계 구축
- 개발된 NCS 및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8조에 의한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심의·인증

* 자격기본법령 개정 추진('11, 교과부)

2.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

①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

-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진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“취업조건부 사내대학(기술대학 포함) 및 계약학과 과정”을 개설
 - 마이스터고,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취업 확대 유도
 - * 사내대학 : 3개 대학 모두 기존 재직자 과정으로 운영
 - * 계약학과 : 전체 271과정 중 채용조건형은 7%에 불과
(대학원 과정, 졸업후 채용조건형으로 운영)
 - 기업의 취업조건부 대학진학 과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**세계상의 인센티브 확대('11)**
 - * 취업조건부 사내대학·계약학과 진학자 채용에 대해 **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우대** 혜택 적용
 - 고졸자 채용시 세액공제액을 2,000만원으로 인상(현행 청년 1,500만원, 기타 1,000만원)
 - '11년 조특법 개정(재정부)
- 사내대학 입학 요건을 완화하여 자사 및 협력업체의 직원 뿐만 아니라 **관련 업종의 직원에게도 입학 허용 검토('11)**
 - *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('11 교과부)
- 사내대학에 대해 **근무경력 학점인정**을 확대하고, 야간·주말 학습이 가능하도록 **사이버대학 등과의 연계모델 추가 개발('11)**
 - * 계약학과의 경우, 교육과정의 20/100까지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)

② 선취업·후진학을 위한 여건 개선

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시 대학 진학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편 추진('11)
 - 취업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탈수급에 대해 수급자격 중지요건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'12년 예산에 반영(복지부, 기재부)
- 재직근로자가 학업 중단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운영 개선 및 참여대학 확대('11)
 - * ('11년)중앙대 등 9개 대학 → ('12년)거점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학으로 확대
 - 근무경력 등 先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, 사이버 과정 등을 도입하여 취업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
- "선취업 후진학 정보"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·운영
 - 교과부·마이스터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육기관, 전형 유형, 운영 사례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

③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

-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, 취업률이 저조한 특성화고는 평가를 통해 지정 해제 등 성과관리 체제 구축
- 산업체 우수기술·기능인을 강사로 채용하고, 학생의 실무역량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대폭 확대
 - *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사업, 글로벌역량강화사업, 취업기능강화사업 등('11년, 약610억원)
- 특성화고-산업계-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수업연한 단축(5년→4년)을 강구,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입 유도
 - *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(중소기업청) 확대 개편(교과부·중기청, 80억원)

3. 산업계의 교육 참여 확대

① 기업의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지원

- 주요기업-정부간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채용확대 및 고교 현장실습 교육참여를 위한 **협약체결 확산**

- S전자는 마이스터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졸업전까지 학업보조비(1인당 500만원)를 지원(방학중 현장실습과 학기중 방과후학교 지원)
- 아울러 마이스터고 졸업생 입사자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후 능력에 따라 대졸자와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 예정

- 「1社 1校 산학협력 프로그램」의 전국적 확산

- * 1기업과 1특성화고가 산학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, 현장연수·실습 지원, 졸업생 채용 등 상호간 협력 추진('10.12월말 현재, 16개 협약 체결)

- 정부와 산업계간 직업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화 채널 마련('11.3)

- * 장관(교과부, 지경부, 고용부, 중기청 등) 및 경제계 대표 참석회의 반기별 개최

○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

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(취업조건부 사내대학·계약학과 진학자 포함)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확대('11)

- * 고졸자 채용시 세액공제액을 2,000만원으로 인상(청년 1,500만원, 기타 1,000만원)

○ 고졸자의 선취업 확대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 보완 및 고졸 취업자의 입영연기 허용

-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('12년 폐지예정)의 한시적 연장 및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편입 자격 개선('11.3)

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에 대해 24세까지 입영연기 허용('11)

○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등 우수 기술·기능 인력에 대한 예우 및 인식 개선

- 「우수 기능인 처우 개선방안」(10.5)을 차질 없이 추진, 기술·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

< 우수 기능인 처우개선 대책 주요내용 >

-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체육올림픽 입상자 수준으로 상향
- 명장에 대한 장려금을 15년까지 현행 동메달 입상자 장려금 수준으로 인상 (연평균 190만원 → 308만원)
- 기능올림픽 입상자 병역특례 유지(병역법 개정, '11년)
- 기능인 관리체계 개선 및 우수기능인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

- 기술·기능인의 성공적 활동 사례(기업 및 개인)를 발굴·홍보하고 임원 승진 등에서 기술·기능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

* 전문계고 출신들이 최고기술자(CTO)·최고경영자(CEO)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기술개발(R&D) 과제 선정시 가점 부여(지경부)

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등에 대한 「기술·기능인력 인식개선 프로젝트」 추진

- * 직업교육의 중요성, 졸업생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「특성화고 재발견 프로젝트」 추진
- * SC와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교장단이 공동으로 기업대상 순회·홍보 실시 추진

<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>

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및 역량 개발을 선도 : (재학) 산학협력 ⇒ (졸업) 채용 ⇒ (채용후) 사내대학 등

○ 「1社 1校 산학협력 프로그램」에 선도적 참여

* (사례) 한국광물자원공사-덕수고등학교('09.6)간 협약 : 산학 겸임 교원 지원, 현장실습·견학 실시, 시설·기자재 교체, 장학금 지원, 취업 지원 등

○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목표제 도입('12년부터)

-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각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직·사무직 신입사원 채용의 일정비율(예:10%)을 자율적 목표로 설정

* 동서발전은 기술직 20명중 6명(30%)을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채용 예정('11)

-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평가항목에 반영 검토(기재부)

- 정부기관의 「기능인재 추천 채용제」를 전문계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
 - * 전문계고(또는 전문대) 출신의 우수 기능인재들이 학교장의 추천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'기능인재 추천 채용제' 시행 중('10년, 30명 선발)
- 고졸 취업자를 위한 사내대학 설립 또는 계약학과 개설 유도
 - 출연연구기관 및 동종분야 산업체 등과 공동 설치·운영
 - * i)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간 공동 설치 검토, ii) 민간기업(삼성전자, SPC 등) 사내대학 설치 사례를 주요 공기업으로 확산 추진

2 산업계 중심의 전문분야별 대학(동업자대학) 설립 추진

- 동종·유사 업종 기업들이 공동으로, 해당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동업자대학 설립 유도
 - 컨소시엄형 사내대학의 설립요건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 마련
- 한국폴리텍대학(11개 대학, 35개 캠퍼스)중 일부 캠퍼스를 민·관 협력의 시범 동업자대학으로 지정·운영 추진('11.6)
 - * 예시 : 성남캠퍼스 → 전자업종 동업자대학 (삼성·LG전자, 주성, SFA 등)
목포캠퍼스 → 조선업종 동업자대학 (현대삼호조선, 목포·세광조선 등)
 - (운영) 업종별 수요에 따라 2년 ~ 3년제 과정(전문학사)으로 운영하며, 사내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현장실습(근무)를 병행
 - (기업) SC 등과 함께 업종별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설계, 교원·시설 확충, 현장실습 지원 등 학교 운영 참여
 - 기업의 R&D인력, 현장전문가 등이 겸임교수로 참여하여, 해당 업종의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여 관련 기업에 공급

③ 산업계 주도의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 구축

- 현장교육 관련 정책결정 및 의사 조정기구로 「국가고용전략회의와 교육 및 인력양성 T/F」를 활용
- 현장 직업교육 실행을 주관하는 기구로 대한상의에 민·관 합동 「직업교육강화추진단」을 설치·운영
 -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업인턴 사업지원, 산업중심의 직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(SC와 협력), 전문계고 졸업자 채용확대, 사내대학·동업자대학 설립 지원 등을 총괄
 - * 구성 : 대한상의, 교과부, 지경부, 고용부, 중기청(단장 : 상의 부회장, 교과·지경부 차관)
- 기업과 학교·학생간 현장교육 중개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별 직업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지역상의(또는 고용센터)를 활용
 - 지역상의가 중심이 되는 “현장직업교육협의회”를 설치, 직업교육 지원센터 활동을 지원
 - 퇴직 CEO 등을 ‘산학협력 코디네이터’로 임명하여 산업체와 학교 간의 연계 역할 임무 부여
-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각 분야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한 직무체계 중심의 교육과정·교과목 개발 및 분야별 동업자대학 설립 지원
 - * 개발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(교재)은 공개하여 정보 공유·확산 유도
 - * SC - 학교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확대
 - 교원의 현장 실무경험 습득, 산업계 동향 파악을 위한 산업체 현장 연수 실시, 학생의 산업체 인턴십·현장실습 매뉴얼 개발·적용

< 현장 직업교육 강화 관리체제(안) >



V. 기대효과

기술력 증진, 생산력 확대, 일자리 복지 체제 구축 동시 추구

① 제도적 청년 취업 경로 제공

-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전적 복지체제 구축

② 세계적 수준의 현장기술 인력양성

- 공급자 중심에서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직업 양성·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제도 운영
-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현장기술 인력을 수요자의 필요(Needs)에 맞추어 원활하게 양성

③ 취업과 학업의 동시 성취

- 재직 근로자가 “일하면서 공부하고 다시 일터로” 돌아갈 수 있는 계속 교육 체제 구축
- 대학 졸업자의 하향 취업이나 역류 입학 등에 따른 개인적·국가적 손실 감소

④ 경제활동 인구의 확대

- 고교 졸업후 취업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낮추어 경제 활동인구를 확대
- 생산활동 인구 고령화 추세 완화

VI. 추진일정

1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

정책 과제	추진일정	관계부처	
		주관부처	협조부처
(1)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			
① 취업계약 입학제도(안) 마련	'11.상	교과부	지경·고용부 중기청
② 취업계약 입학제도 시범운영	'11.하~	교과부	지경·고용부 중기청
(2) 특성화고 취업인턴제 시행			
① 취업인턴제 시행방안 마련	'11.상	교과부	지경·고용부 중기청
② 취업인턴제 시범운영	'11.하~'12	교과부	지경·고용부 중기청
(3) 실행방안			
① 취업계약·취업인턴 관련 비용 세액 공제	'11	기재부	
② 현장실습 산업재해 보상지원 방안 마련	'11.상	교과부	고용부
③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	'11	지경부상의	교과 고용부
(4)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 도입			
①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 도입방안 마련	'11	교과부· 대한상의	지경·고용부

2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

정책 과제	추진일정	관계부처	
		주관부처	협조부처
(1)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			
① 취업조건부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확대	'11	교과부	지경부중기청
② 사내대학 입학 요건 완화	'11.하~	교과부	
③ 사이버대학과의 연계모델 추가 개발	'11	교과부	

(2) 선취업·후진학을 위한 여건 개선

① 기초생활수급 제도 개선	'11	복지부	
②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방식 개선	'11.상	교과부	
③ 선취업 후진학 정보제공 포털 구축	'11.하	교과부	

(3)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

① 특성화고 성과관리	'11~	교과부	
② 글로벌 역량 강화	'11~	교과부	
③ 특성화고-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도입	'11.상	교과부	중기청

3

산업계의 교육 참여 확대

정책 과제	추진일정	관계부처	
		주관부처	협조부처

(1)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자 채용 확대

① 채용확대 및 현장교육 참여 협약 확대	'11~	교과부	지경부
② 1사1교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산	'11~	교과부	
③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우대	'11	기재부	
④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보완 및 고졸취업자 입영연기 활성화	'11	국방부	
⑤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('10.5) 추진	'10~	고용부중기청	병무청
⑥ 공공기관 채용 자율목표제 도입	'12~	기재부	
⑦ 기능인재 추천 채용 제도 추진	'11.상	행안부	
⑧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개선 검토	'11.상	기재부	
⑨ 공공기관에 사내대학·계약학과 개설 유도	'11~	교과부	지경부

(2) 산업계 중심의 전문분야별 대학 설립 추진

① 컨소시엄형 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	'11.하	교과부	
② 폴리텍대학의 동업자대학으로 지정·운영	'11.상	고용부	지경부

(3) 산업계 주도의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 구축

① 직업교육강화추진단 구성·운영	'11~	교부상의	지경부고용부 행안부
②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·적용	'11~	지경부상의	교부고용부 중기청